

절대강자 KIA·파죽지세 NC 광주 빅매치

<1위> <2위>



주말 홈 3연전...양현종·김진우·임기영 선발

이범호·김주찬, 천적·원투 편치 상대 공격 선봉

챔피언스필드가 주말 빅매치로 뜨겁게 달아오른다.

KIA 타이거즈가 28일 NC 다이노스와 시즌 첫 시리즈에 돌입한다. 1위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KIA와 거침없는 연승 행진 속에 2위로 뛰어오른 NC의 맞대결로 이목이 집중된다. 꾸준한 KIA와 폭발적인 NC의 대결로도 표현할 수 있다.

KIA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개막 시리즈를 시작으로 6연속 위닝 시리즈를 달리기 도 하는 등 꾸준한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KIA는 지난 14일에는 초반 돌풍의 주역 kt를 밀어내고 단독 1위 자리에 오르며, 선두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중위권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NC는 지난 16일 장원준이 나선 두산을 4-0으로 제압한 뒤 연승행진을 시작하며 2

위로 치고 올랐다. 3위 LG와의 격차를 벌리고 1위 KIA의 자리를 위협하면서 4월 마지막 시리즈를 빅매치로 만들었다. 마운드에 특히 눈길이 가는 주말 3연전이다.

KIA는 NC와의 3연전에 양현종-김진우-임기영을 투입한다.

양현종은 지난 22일 LG와의 원정경기에서 타구에 왼 무릎 부위를 맞으며 우려를 샀지만 정상 로테이션에 따라 주말 3연전 스타트를 끊는다. 지난해와 달리 빠른 속도로 승을 쌓아가고 있는 양현종은 헛타에 이어 5연승에 도전한다.

29일은 김진우의 시즌 첫 출격이다. 옆구리 염좌로 시범경기를 건너뛰었던 김진우가 뒤늦게 사동을 건다. 공 하나하나에 팀과 김진우의 미래가 달려있다. 김진우는

계속된 '자기 관리 실패'로 김기태 감독의 신뢰를 잃었다. 팀을 강조하는 김 감독은 공개적으로 김진우에게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메시지까지 전달했다. 어떤 모습으로 마운드를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KIA의 4월 최종 순위와 김진우의 올 시즌이 결정된다.

30일 경기는 임기영이 책임진다. 임기영의 5월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자리다. 임시 선발에서 4선발로 자리를 굳힌 임기영은 KIA 선발진의 셋별이다. 임기영은 올 시즌 선발로 등판한 4경기에서 26이닝을 7실점(5자책점)으로 막으면서 1.73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3승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초보 선발'로서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완투승 이후 1주일 만에 등판했던 지난

25일에도 삼성전 승리투수가 됐지만 연속 3안타를 허용하는 등 몇 차례 위기를 맞았다. 막강 화력의 NC 타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데다 처음으로 1주일에 두 차례 등판을 소화하게 됐다는 점도 변수다. 또 '경계 대상'이 되면서 상대의 정밀한 분석도 이뤄지고 있어서 임기영에게 쉽지 않은 등판이 될 전망이다.

NC에서는 5선발 장현식을 시작으로 외국인 '원투 편치' 해커와 맨업이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 만만치 않은 NC 마운드를 뚫기 위해 돌아온 이범호와 김주찬이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한 이범호는 지난 23일 1군에 복귀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초반 슬럼프가 길었던 김주찬도 27일 삼성전에서 선발 라인업에 복귀하며 부진 만회를 노리고 있다. 두 베테랑은 '4번 타자' 최형우의 앞뒤에서 힘을 더하며 열세를 보여왔던 NC와의 '파워 싸움'에 불을 붙여야 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첫 홈런 안치홍 "이제 시작이구나"

덕아웃 T 특독

▲4월이 잘 가라 = 개막 후 5경기에 나온 헛타의 성적은 1.22의 평균자책점과 함께 5승이다. 37이닝을 5실점으로 묵었고 4개의 볼넷을 내줬지만 대신 25개의 타삼진을 뽑아냈다. 26일 삼성전 선발로 나온 헛타는 5연승으로 4월 등판을 마무리했다. 헛타는 4월 한 달에 소감을 이야기해주라는 부탁에 "4월이 잘 가라"라고 답을 해 웃음을 주었다. 헛타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해서 기분이 좋다. 하루하루 열심히 한다는 마음으로 뛰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허허 이거 참 = 오랜만에 '막내딸'이 된 양현종이다. 투수들의 훈련이 끝난 뒤 양현종이 물병이 든 봉지를 들고 덕아웃에 등장했다. 물을 나르는 일은 막내의 몫. 하지만 후배들이 깜짝하면서 마지막까지 훈련을 끝낸 양현종이 물병을 챙겨 들고 온 것이다. 오랜 시간 KIA 마운드의 막내 자리를 지키면서 '막내딸'이라는 애칭으로 사랑받았던 양현종. 오랜만에 막내 일을 하게 된 그는 "허허. 이거 참. 이것들이. 참. 허허"라고 웃으며 물병을 다 정리한 뒤에야 라커룸으로 들어갔다.

▲아이고 수비 코치님 덕분이죠 = 지난 26일 3루수로 겸 5번 타자로 선발 출장한 이범호는 안타 대신 호수비로 팀의 승리에 힘을 보탤다. 길목마다 자리를 지키며 상대의 타구를 낚아챈 이범호는 사람들의 찬사에 "열심히 해야죠.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죠"라고 웃은



뒤 "다 수비 코치님 덕분입니다"라며 김민호 수비 코치에게 공을 돌렸다.

▲이제 시작이구나 = 안치홍이 2014년 8월9일 NC와의 원정경기 이후 처음으로 그라운드를 돌렸다. 안치홍은 지난 26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8회 선두타자로 나와 솔로포를 터트리며 7-0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시범경기에서 만루포를 때리기는 했지만 정규시즌에서는 첫 홈런. 군 제대 후 처음 본 손맛이기도 했다. 안치홍은 "요즘 감이 좋지 않아서 신경이 쓰였다. 상대가 직구를 많이 던지니까 직구에 초점을 맞췄고 있었다. 그라운드를 도는데 특별한 생각은 없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Choo~ 한 이닝 홈런·3루타 텍사스 역사적 대기록



추신수가 26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의 미네소타 트윈스와 벌인 2017 미국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서 5타수 3안타를 치고 3타점 3득점을 올렸다. 사진은 이날 8회말 추신수가 2사 후 3점 홈런을 터트리며 동요와 하이파이브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MLB 추신수 시즌 2호 홈런
2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 홈경기

3점 홈런

추신수 (34-텍사스 레인저스) 선두타자로 나와 3루타

8회말

1 6:30 앞선 상황 2사 1, 3루에 초구를 잡아당겨 3점포

2 타순이 한 바퀴 돌아 11:30로 앞선 상황

추신수 (34-텍사스 레인저스)

2사 1, 3루에 초구를 잡아당겨 3점포

/연합뉴스

2루타 부족·김현수 100안타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3점 홈런과 3루타 등 3안타를 때리며 뜨거운 타격감을 자랑했다.

김현수(볼티모어 오리올스)는 꾸준한 타격으로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100번째 안타를 생산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한국인으로서 100안타 고지를 밟은 선수는 최희섭(은퇴), 추신수, 강정호(미즈비고 파이리츠)에 이어 김현수가 네 번째다.

추신수는 27일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서 9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 5타수 3안타를 치고 3타점 3득점을 올렸다. 이날 2루타를 추가했다라면 한 경기에서 모든 종류의 안타를 치는 '사이클링 히트'도 만들 수 있었다.

추신수는 이날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처

음으로 9번 타자로 출전했다.

추신수는 0-2로 밀린 2회말 2사 1·2루에서 좌익수 뜬공으로 잡혔고, 4회말 2사 1·2루에는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지만 2-2로 맞선 6회말 1사 1루에서 중전 안타로 포문을 열었다. 추신수는 엘비스 안드루스의 적시타에 득점에도 성공했다.

6-3으로 앞선 8회말, 추신수는 한 이닝에 3루타와 홈런으로 총 7루타를 치는 진기록을 만들었다. 선두타자로 나와 중견수 쪽 3루타를 치고 나간 뒤 라이언 루아의 만루 홈런으로 11-3으로 달아난 2사 1·3루에서 추신수가 다시 타석에 들어섰다. 추신수는 마이클 톤킨의 조구 포심 패스트볼을 잡아당겨 왼쪽 담장을 넘기는 3점포를 쏘아 올렸다. 텍사스는 14-3으로 승리했다.

김현수는 탬파베이 레이스전에 7번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 4타수 1안타 1볼넷 2

삼진 1득점을 기록했다.

김현수는 첫 타석이었던 2회말 1사에서 탬파베이 선발투수 알렉스 콕을 상대로 좌전 안타를 만들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김현수의 개인 통산 100번째 안타다.

김현수는 다음 타자 요나탄 스토프의 중전 안타에 2루를 밟고, 라이언 플래허티의 중전 안타에 홈까지 내달려 볼티모어에 선취점을 안겼다.

이후 김현수는 4회말에는 1루수 땅볼로 잡혔고, 6회와 9회에는 삼진으로 물러났다. 3-4로 뒤진 연장 11회말 1사 1·2루에서는 볼넷을 골라 만루를 채웠다. 다음 타자 스토프가 희생플라이로 4-4 동점을 만들었다. 다시 2사 만루를 잡은 볼티모어는 세스 스미스의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내면서 끝내기 승리를 거뒀다.

/연합뉴스

'열혈 KIA팬' 배우 이선균 30일 NC전 시구

KIA 타이거즈가 30일 배우 이선균과 안재홍을 초청, 승리기원 시구·시타 이벤트를 개최한다.

KIA 열혈 팬인 이선균 씨는 이날 NC 다이노스와의 홈 경기에서 시구자로 나서 KIA의 승리를 기원한다.

평소 KIA 열혈 팬임을 밝힌 이선균은 지난해 8월 2일 광주 한화전을 직접 찾아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선균은 올 해 초 구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타이거즈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밝혔고, 이야기는 2017년 KIA 팬북에 수록되었다.

시타자로는 지난해 이선균과 함께 챔



이선균 안재홍

피언스 필드를 찾아 KIA를 열정적으로 응원한 배우 안재홍이 맡는다.

한편 이선균·안재홍은 지난 26일 개봉한 영화 '임금님의 사건수첩' 주인공으로 열연을 펼쳐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라포바 15개월만의 복귀전서 승

WTA 포르셰 그랑프리 1회전

'러시안 뷰티' 마리아 사라포바(30·러시아)가 15개월 만에 복귀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사라포바는 26일(현지시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포르셰 그랑프리(총상금 71만900달러) 사흘째 단식 1회전에서 로베르타 빈치(36위·이탈리아)를 2-0(7-5 6-3)으로 제압했다.

지난해 1월 호주오픈에서 도핑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테니스연맹(ITF)으로부터 15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던 사라포바는 25일로 징계가 만료됐다.

1년 이상 공식 대회에 출전하지 않은 사라포바는 세계 랭킹에서 제외되었던 자력으로는 투어 대회에 출전할 수 없

만 초청 선수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나왔다.

특히 투어 대회가 월, 화요일 이틀간 1회전을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회 조직위원회는 사라포바의 징계가 화요일인 25일에 끝나는 점을 배려해 사라포바의 1회전을 수요일인 26일에 배정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한 사라포바는 서브 에이스를 11개 쏘으며 견제를 과시했고, 자신의 서브 게임은 한 차례만 내줬다. 샷을 날릴 때 내는 '괴상'도 여전했다.

복귀전에서 2015년 US오픈 준우승자 빈치를 1시간 44분 만에 꺾은 사라포바는 2회전에서 에카테리나 마카로바(43위·러시아)를 상대한다. 사라포바가 공식 경기에서 이긴 것은 지난해 1월 호주오픈 16강전 이후 15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세계 94위 정현, 31위 꺾어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94위·삼성증권 후원)이 세계 랭킹 31위 필리프 콜슈라이버(독일)를 물리쳤다.

정현은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바르셀로나 오픈(총상금 232만 4천905유로) 대회 사흘째 단식 2회전에서 콜슈라이버를 2-0(6-3 6-4)으로 제압했다. 이로써 정현은 27일 3회전에서 알렉산더 즈베레프(21위·독일)를 상대하게 됐다.

이 대회 전까지 정현이 이긴 상대 가운데 세계 랭킹이 가장 높았던 선수는 지난해 2월 ATP 투어 ABN 알로 월드토너먼트 1회전의 기예르모 가르시아 로페스(스페인)로 당시 순위는 34위였다.

올해 34세 베테랑인 콜슈라이버는 2012년 세계 랭킹 16위까지 올랐던 선수다.

이번 대회에는 앤디 머리(1위·영국), 라파엘 나달(5위·스페인) 등 세계적인 강호들이 출전하고 있다. 특히 정현과 나달이 16강에서 나란히 승리하면 준준결승에서 맞대결을 벌이게 된다. /연합뉴스